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祝 辭

- 일 시 : 2004. 6. 7(화) 09:30-
- 장 소 : 신라호텔 영빈관

통일부장관  
정 세 현

박영규 통일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학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남북정상회담 4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올해에도 내외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멀리 해외에서 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년전 남북정상회담은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단초가 마련되었고,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정상회담이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4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심도있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북관계 paradigm의 변화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남북관계는 경제, 사회문화, 인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대화와 교류라는 「점」으로부터 시작한 남북관계의 변화가 철도와 도로 연결이라는 「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특구개발이라는 「면」과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은 민족의 대동맥을 잇는 대역사이면서도 동시에 세계로 뻗어 나갈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전진기지이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금강산 관광특구는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등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벌써 15회의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민간교류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근현대 민족운동과 관련된 남북공동학술회의도 있었고, 다음주에는 6.15 남북공동행사가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 인사들의 방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북한도 이제 남북교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여러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화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순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없었다면 이 같은 변화가 가능했겠는 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새삼 그 의의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더구나 지난주에는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도 개최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금년 6.15일부터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취할 것과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의 남북관계 발전에 걸맞는 군사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 분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 분야의 진전은 경제협력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부구조」라는 것이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진전이 우리 경제의 안정과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한 남북정상회담의 첫 번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추동된 두 번째 흐름은 최근 북한의 변화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은 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체제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있게 변화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98년 햇볕정책 추진 초기에도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은 여전하였었습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최고 당국자간의 신뢰 구축은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는 곧 체제 붕괴'라는 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도 국제변화에 발맞춰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남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변화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배급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생산·유통체계를 시장을 통한 메커니즘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나, 중국·동남아·유럽 등지에 대표단을 보내 선진 경제제도를 벤치마킹해 나가겠다는 것은 북한도 이제 고립을 풀고 밖으로 나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남북경협을 어떻게든 성공시켜 개방의 초석으로, 경제발전의 디딤돌로 삼고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다고 해서 변화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치 군사·분야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해 나가고 있듯이, 북한도 결국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변화를 이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문제는 북한의 변화 속도와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이 조속히 핵문제 등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체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적극적으로 외부와의 경제협력, 관계개선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좋은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의 변화를 국제환경의 변화와 조화시키는 일입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6자회담, 이라크 파병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최근 안보현안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협조를 확보하고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하면 북한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벤치마킹해 나간다면, 5~10년 내에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따라서 남북관계도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번영의 비전을 토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국내외 전문가들이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안보 및 통일 환경과 국제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 개최를 위해 특별히 노력해 주신 통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